

원광대병원,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산업 해외 수출기반 구축

글로벌 의료 한류 확산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최근 병원 및 전라북도청 관계자들이 러시아 의료 유관기관들을 방문, 이중 4곳의 유관 기관들과 우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 2017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산업 해외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러시아 의료 유관기관들과 MOU 체결을 추진 한 것이다.

원광대병원 김태균 진료처장, 서일영 기획조정실장, 이철 국제진료협력센터장,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 건국장 등 관계자 일행은 러시아 학술제조회사 아이디(대표 크롤레브스키 베체슬라브), (주)SMT 클리닉(대표 크리진 세르게이), (유)진료센터(대

표 칼미코프 안드레이), (유)미네랄 바다(대표 콜라다 류드미라)등 의료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을 성사 시켰다.

김태균 진료처장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도 많을뿐더러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해외의료 진출을 위해 중국, 몽골, 동남아 각국들과의 우호 협력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본원의 노하우를 살려 러시아에서도 의료 한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4곳의 러시아 유관기관들은 이번 우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의학 분야, 교육, 노인학 분야에 있어 치료방식, 신기술 개발, 재활 등 상호 관심 분야에 협력과 교류를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기관들간 의료진을 포함한 연구원 상호 교류와 연구, 의료 중



원광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및 전라북도청 관계자들이 러시아 의료 유관기관들을 방문, 이중 4곳의 유관 기관들과 우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와 강의, 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다지기로 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양·한방 협진 의료서비스의 해외 수출 기반 확대 및 의료 제반 산업 관련 기관들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기분 주민세 20억5600만원 부과

익산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경과시 3% 가산금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4일,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 6천여건 20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카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

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납부 해줄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산란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고 판매하려던 선장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마구잡이로 꽃게 잡은 일당 덜미

매년 6월 21일~8월 20일까지 포획금지 기간

산란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고 판매하려던 선장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저녁 10시 4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선착장에서 포획금지 된 '꽃게'를 잡은 7.9급 어선 선장 김씨(61)와 이를 유통·판매하려던 유통업자 송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물을 사용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잡은 수산물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선장은 산란기 알이 가득 차 있는 암컷 꽃게를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은 꽃게 480kg를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유통업자에게 넘겨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상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유통과 판매장도 확인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군산=장 현 기자

올해 군산시민의 장 3개 부문·7명 접수

군산시가 9월 28일 개최되는 '제55주년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맞아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총 7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26일간 진행된 분야별 후보자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후보자 추천이 없었던

효열장 부문은 제외하고 문화예술체육장 1명, 공익봉사애향장 4명, 경제산업근로장 2명 등 총 3개 부문에서 총 7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다.

정진수 총무과장은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8월말 수상자를 확정하고 9월 28일 제55주년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관문 기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임금 월 97만원

군산시, 25일까지 53명

주 5일·총 30시간 근무

군산시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보 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총 5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3개 유형 23개 사업(주민·여권 신청 민원도우미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은 선별인원 범위내 우선 선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정기 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사립 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및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포기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7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독립유공자유족 등 500명 참석

광복회 전북도지부 군산지회(지회장 전년권)에서는 15일 오전 10시 군산 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및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포기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경축행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유족, 군인,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나눴으며, 식전행사로 진행된 색소폰 연주와 영광여자고등학교 합창단의 나라사랑 합창과 국민의례, 전년권 군산지회장의 기념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의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년권 광복회 전북도지부 군산지회장은 "광복절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된 날"이라며, "광복절 경축행사를 통해 나라사랑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고귀한 희생의 결실임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아울러 문동신 군산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일제의 폭압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광복절, 순국선열 애국정신 되새겨

익산시, 경축식 거행... '평화의 소녀상' 설치로 의미 더해

익산시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올해 광복절을 맞아 정현을 시장은 도내 유일의 생존광복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데 대해 시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15일 오전 10시 슬리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회원 등 보훈단체, 각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한편, 광복절 당일 익산역 광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광복의 의미를 더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넋 앞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